

A Short History of Day and Night Prayer

주야 기도의 역사

Why do we do 24/7 prayer? The early church didn't do it, did it? So why should we in Kansas City? I could give an answer from the Bible in terms of the theological basis of the pattern of heavenly worship modeled on earth. I could give an answer from the unprecedented move that God is doing around the world in the last ten years amongst Protestants, Evangelicals, Pentecostals, Catholics, Orthodox and Coptics. But as one of my hats is to teach church history in our bible school I'm going to take you on a journey through church history.

우리는 왜 24/7 기도를 하는가? 초대 교회는 24/7 기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이것을 캔사스 시에서 하고 있는가? 나는 하늘의 예배 모델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패턴의 신학적인 기반으로 성경에서 답을 제시할 수도 있고, 지난 10 년 동안 개신교, 복음주의, 오순절, 카톨릭, 정교회, 그리고 콥틱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움직이고 계신 것을 기반으로 답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 학교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교회사를 가르치는 일이기에, 여러분을 교회 역사를 통해 여행을 하며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I. DID THE EARLY CHURCH PRAY 24/7?

초대 교회는 24/7 기도를 했는가?

- A.** The Preacher in Ecclesiastes is right -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What we are doing in Kansas City and what is happening across the globe is not the latest church growth technique, it's not a fad. We're not doing it to keep up with 24/7 grocery stores and 24/7 banking – although as the Scottish Puritan Henry Scougal famously said “The worth and excellency of a soul is to be measured by the object of its devotion” and I think we have to question our values if we think that groceries and fast cash are more worthy of 24/7 devotion than Jesus. But day and night prayer is not new but its not new, its been done before and in fact the truth is the further you go in studying the story of the great moves of God in history the further you believe as I do that it all begins with prayer. Let me take it back one step – it begins with Jesus – but if you aren't talking with him – which is prayer, there are perhaps some other questions you should be asking about your Christianity.

전도서의 설교자의 말이 옳다 –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은 없다. 우리가 현재 캔사스 시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최근에 개발된 교회 성장 전략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것은 24/7 문을 열고 있는 마트나 은행에 뒤지지 않기 위한 것도 아니다. 스코틀랜드 청교도인 헨리 스쿠걸은 유명한 말을 했다,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이것이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만일 우리가 마트나 야간 현금 인출 창구가 우리의 24/7 헌신을 받기에 예수님보다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야기도는 새로운 일이 아닌 이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연구해나가면 나갈수록 당신은 이 모든 일들은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와 같이 믿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만일 당신이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아마 자신의 기독교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Let’s get one thing out of the way before we begin you as an individual can never do 24/7 prayer. But nobody has ever argued that 24/7 prayer is one persons responsibility, it will only happen when an entire community prays. The much simpler and harder question which we all must face is this – are you praying? but I digress... onto the early Church.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언급하면, 당신이 누구일지라도 혼자서 24/7 기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24/7 기도가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체 공동체가 시도해나갈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더 단순하고 어려운 질문은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가이다. 그러나 나는 잠시 옆으로 빠져서... 초대 교회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 B.** The early Church begins with prayer. In the upper room prayer meeting Luke tells us that the 120 “*all continued with one accord in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e wome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His brothers.*” (Acts 1:14), and then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and then... they didn’t pray anymore?

초대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다락방 기도 모임에서 누가는 120 명이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 1:14)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부어졌고 ...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는가?

Often when we look at church history we study events and people, and we fail to notice everyday life. So here's the question if you were a believer in Yeshua living in the New Testament community how much of your life would be guided by prayer and the answer is quite a lot. The New Testament church was a praying church. The culture of prayer permeated pretty much everything they did.

우리가 교회를 공부할 때, 종종 우리는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들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면, 만일 당신이 신약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다면, 당신의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기도에 의해 인도함을 받았는가를 물어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매우 많았다고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신약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praying church)였다. 기도의 문화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매우 깊이 침투해있었다.

- C. We are told after Pentecost that the early church devoted themselves to four activities - *“the Apostles teaching, fellowship, the breaking of bread and prayer”* (Acts 2:42). Prayer was one of these devoted activities that this informal explosive group undertook, but what did this look like, where did they pray and how much time did they spend praying?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초대 교회가 4 가지 활동에 주로 집중된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기도는 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폭발적인 그룹이 집중하고 있던 활동 중의 하나였다. 이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를 행해나갔는가? 그들은 어디서 기도했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해나갔는가?

1. As Gentile believers we can have a tendency to underplay the importance of the Temple – Jesus fulfilled. They prayed in the **Jerusalem temple** at the Jewish times of prayer (Acts 3:1). Jesus called the Jerusalem temple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Mark 11:17) where people didn't just pray at the prayer times, but *“night and day”* (Luke 2:37). Jewish prayer had followed the daily sacrifices in the temple, two or three times a day. Daniel prayed three times a day¹

¹ Daniel 6:10

이방인 신자인 우리는 성전(the Temple)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다 (행 3:1).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NKJV 직역: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 (막 11:17)이라고 부르셨으며, 이는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 “주야 (night and day)”로 기도하는 곳이다 (눅 2:37). 유대인 기도는 성전에서 매일 드러지는 희생 제사 시간을 따랐으며, 하루에 두 번 혹은 세 번 행해졌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

2. They would have prayed in their **synagogue communities** on Sabbath and at the daily Jewish prayer times.

그들은 안식일, 혹은 매일의 유대인 기도 시간에 **회당 공동체**에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

3. They met together in each others **homes** – from “*house to house*” (Acts 2:46)

그들은 서로의 집에서 만났다 - “**집집마다 돌아가며** (한글 KJV)” (행 2:46)

4. According to the Didache (8:3-11) they prayed the Lord’s Prayer three times a day

디다케(Didache)에 따르면 (8:3-11), 그들은 주 기도문을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

Jesus had disciples from every Jewish sect at the time. One of these sects was the Essenes - The injunction by Paul to “pray continually”² which would be taken seriously by generations of monastics was taken no less seriously by both the Essenes³ (who modeled their worship on the continual nature of Davidic worship) and the early church. To a certain degree the content of the early church’s prayers bore a resemblance to Essenic prayer. Many of the prayers of the Essenes that we find in the Dead Sea Scrolls had an eschatological tone, praying and waiting for the Parousia. While Christian prayer focused predominantly on the person of Christ, most New Testament prayers are placed within the context of the second coming or the eschatological age.

² 1 Thess 5:17

³ According to the Essenes scroll (Community Rule VI): “*And where the ten are, there shall never lack a man among them who shall study the law continually, day and night, concerning the right conduct of a man with his companion. The Congregation shall watch in community for a third of every night of the year, to read the book and to study law and to bless together*”. 에세나파의 문서 (Community Rule VI) : “10 명이 모인 곳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율법을 주야로 쉬지 않고 연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한다. 이 신자들은 공동체에서 일 년의 밤 중 1/3을 깨어서 말씀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며 서로 축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시에 모든 유대인 분파에서 모인 자들이었다. 이 분파들 중 하나는 에세네파였다. 바울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는 세대들에게는 심각하게 다가왔을 것이고, 에세네파 (다윗 예배의 지속적인 특성에 기반한 예배 모델을 가짐)나 초대 교회에게는 더욱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초대 교회의 기도들은 어느 정도는 에세네파의 기도와 닮아있었다. 사해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에세네파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종말론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내용이였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그리스도께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약 성서의 기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혹은 마지막 세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5. And if that wasn't enough – there was “Watching” Prayer - The early church remembered Jesus encouragement **“Blessed are those servants whom the master, when he comes, will find watching. Assuredly, I say to you that he will gird himself and have them sit down to eat, and will come and serve them.”** (Luke 12:37). By the second century “Watching” prayer was common where individuals or groups would rise at least for a portion of the night (especially around the midnight hour) to pray with hope for the return of the Messiah.

그리고 만일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깨어있는, 와치” 스타일의 기도가 있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격려를 기억하고 있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눅 12:37). 2 세기경까지, “깨어있는, 와치” 기도는 일반적으로 행해졌으며, 개인들, 혹은 그룹으로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 소망하며 밤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특히 자정 전후로) 깨어있는 기도였다.

6. Private prayer was also practiced in line with Jesus teaching. (Matt. 6:6)

개인 기도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해졌다 (마 6:6).

7. Tertullian writes with an expectation that all Christians are going to go to the place of prayer at least five times a day and at night as well.

터툴리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낮에 적어도 다섯 번, 그리고 밤에도 역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글을 남겼다.

We know the early church was a dynamic community, based on the Apostle's teaching, going into all the world heralding the good news of their Messiah Yeshua – but we must recognize that the apostles began their relationship with Jesus, talking with him and walking with him and it continued that way talking

with their messiah through prayer and walking with Him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early church was bathed in prayer and this was responsible for the explosive growth we see in the early centuries in the midst of sporadic persecutions – the church grew with power. So you can say the early church didn't have a profound culture of prayer – you can say it, but you'd be wrong and I wouldn't want to be you when we finally get to meet the disciples in the age to come.

우리는 초대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 전 세계로 메시아 예수의 복음을 알리는 역동적인 공동체였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님과 그의 관계를 시작했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했으며, 이는 이후에도 기도를 통해 그들의 메시아와 대화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 초대 교회는 기도에 폭 잡혀 있던 공동체였으며, 이는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초창기에 초대 교회가 권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당신은 초대 교회가 깊은 기도의 문화를 가지지 않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 당신은 틀린 답을 가진 셈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다가올 시대에 결국 이 제자들을 만날 때 당신과 같이 생각하고 있고 싶지는 않다.

You're probably thinking praying five times a day and through the night sounds a bit monastic – you'd be wrong – but Monks (and Nuns) are important to our story. Many monasteries were closed down after the Protestant Reformation in the 16th Century, so for us as Evangelicals we have often not focused on this tradition in the church, but if we do we're closing our eyes to over a thousand years of church history.

당신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수도원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맞는 생각은 아니지만, 수도사(수녀)는 우리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수도원들은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 문을 닫았으며, 따라서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우리는 교회의 이 전통에 대해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이는 교회사의 천년 이상의 시간에 대해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 되어버린다.

II. MONASTICISM IN EGYPT: THE DESERT BECOMES A CITY

이집트의 수도원 운동: 사막이 도시가 되다

- A.** For over a thousand years if you wanted to be radical for Jesus you became a monk (or a nun). Young men and women dedicated their lives to God and prayer, but also undertook vows of poverty, of celibacy and of obedience to their spiritual superiors. While we must be mindful to learn from their mistakes both in theology and practice, this should not stop us from learning from this group of spiritual “athletes” that formed the backdrop and the prime motivating force of church history (in all traditions) for well over 1000 years.

1,000 년의 기간 동안,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향해 과격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은 수도사 (또는 수녀)가 되었을 것이다. 젊은 남녀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에 헌신했으며, 또한 청빈과 독신, 그리고 영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에 자신을 드러왔다. 우리는 그들이 행한 신학적, 관습적인 오류에 대해서도 잘 염두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000 년 이상 교회사의 주요 원동력과 배경이 된 이 영적인 “운동선수”와 같은 그룹들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 B.** So let’s fast-forward a few hundred years to Egypt at the beginning of the fourth century. Often when we think of Egypt we think of the Pyramids or we think of the modern nation which is predominantly Islamic, but Egypt has a rich Christian history at the time of the Romans. At the beginning of the fourth century Christianity which had just undergone the very worst empire wide persecution was suddenly legalized under Emperor Constantine and not just legalized but promoted and all of a sudden everybody was becoming a “Christian” and not necessarily because they loved Jesus. This politic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hurch meant lots of change – and many of those who were true followers of Jesus looked with sadness at the changes. Church leader Gregory of Nazianzus complained at this time that **“The chief seat is gained by evil doing, not by virtue; and (church leadership) belongs, not to the more worthy, but to the more powerful”**.

시계를 조금 빠르게 몇 백 년 앞으로 돌려서 4 세기 초의 이집트를 생각해보자. 종종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피라미드나 현재의 이슬람화된 국가를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이집트는 로마 시대에 부요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4 세기 초반, 제국 전체에 걸친 최악의 핍박을 경험한 기독교는 콘스탄틴 황제 하에 갑작스레 합법화가 되었으며, 합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참 승격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려 했다. 교회가 이렇게 정치와, 제도화된 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슬픈 눈으로 바라봤다. 교회 지도자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는 이 때 이렇게 불평했다, “중요한 자리는 미덕을 보여서가 아닌, 악한 행동을 해서 얻어냈고; (교회의 리더십)은 합당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더 힘이 많은 자들에게 돌아갔다.”

- C. In response instead of displaying their devotion through being a faithful witness in the face of persecution, many believers now withdrew from the mixture that was societal Christianity into the wildernesses and deserts of Egypt. An Egyptian known as **St Anthony** is seen as the father of those who fled society and the father of the Desert Fathers. He is perhaps the most famous of the “Desert Fathers” as they became known because his biography was written by a famous bishop from Alexandria known as Athanasius. This biography made Anthony a household name in the Roman world and was perhaps the popular book outside the Bible for a thousand years.

이전에는 사람들이 핍박에 맞서 충성된 증인이 됨으로 삶을 헌신해왔지만, 이러한 변화 이후에 많은 신자들은 사회적 기독교라는 혼합체에서 벗어나서 이집트의 광야와 사막으로 나왔다. **성 안토니오** 알려진 한 이집트인은 사막의 교부들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는 사회를 벗어나 사막의 교부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막의 교부들” 중 하나였으며, 이는 그의 전기(일대기)가 유명한 주교인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전기로 인해 안토니는 로마 세계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으며, 이 전기는 1,000 년 동안 성경 이외에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다.

- D. These “Desert Fathers” formed communities given to prayer, to simple manual labor, to teaching and a very simple lifestyle all over Egypt. Some of these communities numbered in the tens of thousands. The strict lifestyle of prayer and the amount of people praying means that that this next big move of God in the church was an early example of night and day prayer.

이 “사막의 교부들”은 이집트 전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기도, 그리고 단순 노동, 가르침, 그리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에 자신을 드렸다. 이 공동체 중 어떤 것은 10,000 명이 넘는 곳도 있었다. 엄격한 기도의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의 크기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교회 안에 행하실 일이 주야로 기도하는 것의 초기 모델을 세우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III. THE SLEEPLESS ONES

잠들지 않는 자들

- A.** The Egyptian monks may have not been organized around a schedule of 24/7, but the next group were – The Order of the Sleepless Ones. One of the conundrums that the Monasteries in Egypt dealt with was how to balance Paul’s invitation to “Pray without Ceasing” with the fact that he said he worked “Night and Day”. How could one achieve both continuous prayer and continuous work? They answered this question with monks working at simple manual labour and praying at the same time. However this question still vexed other monastic leaders and was answered in other ways such as the answer proposed by Alexander Akimetes and his order of the sleepless ones or the Acoemetæ.

이집트 수도사들이 24/7 기도라는 계획표를 세워서 기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그룹은 말 그대로 잠들지 않는 자들의 수도회였다. 수도원들이 다뤄야 했던 난제 중의 하나는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초청과 그가 “밤 낮으로” 일했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냐는 것이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수도사들이 단순 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하는 것으로 답을 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여전히 다른 수도원 리더들에게 어려운 부분이었고, 또 다른 답을 낸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알렉산더 아키메테스와 그의 수도회, 즉 잠들지 않는 자들, 혹은 아코에메테라고 불린 자들이었다.

- B.** In 431, the Council of Ephesus denounced a group called the Messalians as the most “noxious heresy in memory”. Messalian means “People who Pray”. The reason we mention this is that in 428 a certain Alexander was driven from Constantinople with the charge of being a Messalian. Alexander led the first group of Monastics who truly organized themselves to pray night and day. Alexander believed the invitation to continual prayer and continual work was a corporate invitation and must be undertaken by the church as a whole.

에베소 공의회는 AD 431 년에 메살리안(Messalians)이라고 불린 그룹을 “기억에 남을 유해한 이단”이라고 비난했다. 메살리안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우리가 이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AD 428 년에 또 다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메살리안이라는 이유로 콘스탄티노플에서 쫓겨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알렉산더 아키메테스는 진실로 주야로 기도하기 위한 첫 수도원 그룹을 이끌었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일하라는 초청은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라고 믿었으며, 한 교회 전체가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 C. A civil servant in the Imperial capital Constantinople, Alexander, like many other monks had been challenged by Matt 19:21. He gave up his possessions and eventually settled on the banks of the Euphrates and organized around 400 monks into choruses of four languages – Roman, Greek, Syrian and Egyptian. He initially prayed at the Jewish prayer times, then extended this to seven times a day because of Ps 119:164, (this was later adopted by the Benedictines as the divine office). Then challenged by the man in Psalm 1 who meditates on the law of the Lord Day and Night he moved to ceaseless praise. Alexander described it this way: *“My Christ in His creation allotted twenty-four hours for day and night; so let us also pass the course of the day and night with twenty-four services singing hymns to God”*.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공무원이었던 알렉산더는 다른 많은 수도사들이 그렇듯이 마태복음 19:21 절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결국은 유프라테스 강의 독변에 자리를 잡았고, 400 명 정도의 수도사들로 구성되었고 4 개국어(로마, 그리스, 시리아, 이집트어)를 할 수 있는 합창대를 조직했다. 그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으며, 이후에는 이를 시편 119:164 절을 기반으로 하루에 7 번 기도하는 것으로 확장했다 (이는 이후에 베네딕트회에서 신성한 직무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시편 1 편의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에 도전을 받아, 그는 쉬지 않는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옮겨갔다. 알렉산더는 이를 이렇게 묘사했다: “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하실 때 낮과 밤에 24 시간을 할당해두셨다; 따라서 우리도 또한 낮과 밤 동안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24 번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 D. After 20 years he took 70 monks and went on an “apostolic journey” to Antioch and Constantinople. Wherever he went both monks and the general population were attracted to his preaching and the lives of the monks. However he was viewed as a threat to the established church and he was driven from both cities. Driven from Constantinople, they established the monastery at the mouth of the Black Sea. This became the founding monastery of the order of the Acoemetæ (literally “the sleepless ones”). The order is however most well known because the monks became the backbone of the most famed monastery in the history of Constantinople – Studion. It became known as defenders of orthodoxy and became political. It became a center of learning and piety for almost a thousand years (until the fall of Constantinople in 1453).

20 년 후에, 그는 70 명의 수도사들을 데리고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로 “사도들과 같은 여행”을 떠났다. 그가 어디를 가던지, 수도사들과 일반 시민들은 그의 설교와 그와 함께하는 수도사들의 삶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그는 제도권 교회에 위협적으로 보였으며, 두 도시 모두에서 쫓겨났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쫓겨난 후, 그들은 흑해의 어귀에 수도원을 건립했다. 그리고 이것이 아코에메테 (문자적으로 “잠들지 않는 자들”) 수도회의 최초의 수도원이 되었다. 이 수도회는 이후에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이 수도사들이 콘스탄티노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수도원, 스튜디오(Studion)의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정통 신앙의 수호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정치적 장소가 되었다. 이곳은 거의 1,000 년 동안 배움과 경건함의 중심이 되었다 (1453 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망할 때까지).

E. LAUS PERENNIS IN THE WEST: AGAUNUM - The practice of Laus Perennis (Perpetual Praise) was popular in Asia Minor and into Persia during the fifth century and this practice came into Western Europe at a monastery in modern day Switzerland – Agaunum (known as St Maurice today) in 522. This practice went on until around 900AD and impacted monasteries all over France and Switzerland.

서방의 라우스 페레니스(라틴어): 아가우눔 – 라우스 페레니스(영속적인 찬송)는 5 세기에 소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 대중적이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스위스인 서유럽의 수도원인 아가우눔(오늘날 성 모리스로 알려진 곳)으로 AD 522 년에 전해졌다. 이는 약 AD 900 년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프랑스와 스위스 전역의 수도원에 영향을 끼쳤다.

IV. THE IRISH: COMBINING PRAYER AND MISSION

아일랜드: 기도와 선교를 결합

A. While many of the monastic movements tried to “escape from the world”. The next monastic movement that instituted night and day prayer saw prayer as a foundation to bring about societal change. The Irish married prayer and missions together and mainstream historians have even gone as far to say that the Irish “saved civilization”. What did they mean by this?

많은 수도원 운동들은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했었다. 이 다음으로 주야 기도를 시행한 수도원 운동은 기도를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근간으로 여겼다. 아일랜드인들은 기도와 선교를 결합시켰고, 주류 역사학자들은 아일랜드인들이 “문명을 구원했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들은 무엇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인가?

B. St Patrick and Vallis Angelorum - Monasticism in Britain and Ireland developed along similar lines to those of the Desert Fathers in Egypt. In 433 AD, just as the Roman Empire was starting to crumble, St. Patrick returned to Ireland (after having been enslaved on the island previously) with a view to preach the

Christian message to the Irish. He was followed by a number of other monks who established monasteries. While Christianity in much of the empire had been founded upon bishops overseeing cities and urban centers, Ireland had never been conquered and had no urban centers. The fall of the empire therefore had little impact on it, making it relatively easy for monasteries to become the center of influence in Irish society. Patrick's preaching followed by signs and wonders converted a third of the tribes.

성 패트릭과 벨리스 안젤로룸(천사들의 계곡, 방고르 지역) – 영국과 아일랜드의 수도원 운동은 이집트의 사막의 교부들과 비슷하게 발전했다. AD 433 년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성 패트릭은 기독교 메시지를 아일랜드에 전할 목적으로 아일랜드로 돌아왔다 (이는 이전에 섬에서 노예로 지낸 이후이다).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수도원을 세웠던 몇몇의 수도사들이 있었다. 제국 내의 기독교의 상당부분이 도시나 도심 중심을 관장하는 주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반면, 아일랜드는 정복된 적도 없었고, 도시의 중심이라는 것이 없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몰락은 이곳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수도원은 쉽게 아일랜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중심이 되었다. 성 패트릭의 설교에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으며, 이 종족의 1/3 이 개종을 했다.

Have you ever thought that the God who everyday sees ten thousand sunrises and sunsets actually likes places – Take Jerusalem and the land of Israel. It seems that God likes the land. Well there is another place in Northern Ireland that God seems to like as well. According to the 12th century Anglo Norman Monk Jocelin, on one of Patrick's many journeys, he came to rest in a valley on the shores of the Belfast Lough. Here he and his comrades beheld a vision of Heaven. Jocelin states, "they held the valley filled with heavenly light, and with a multitude of heaven, they heard, as chanted forth from the voice of angels, the psalmody of the celestial choir." The place became known as the *Vallis Angelorum* or the *Vale of Angels*. The famed Bangor Monastery would begin its life here, approximately one hundred years later; from this spot heaven's song would reach into Europe.

매일 수 만 번의 일출과 일몰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같은 곳 말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장소가 북아일랜드이다. 12 세기 앵글로 노르만 수도사 조셀린에 따르면, 성 패트릭의 많은 여정 중에, 그는 벨페스트 호 해변의 계곡에서 잠시 쉬었다. 여기서 그와 그의 동료들은 하늘의 환상을 목격했다. 조셀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계곡을 하늘의 빛과 하늘의 허다한 무리로 가득 채웠고, 그들은 천사들의 음성으로부터 하늘 찬송대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이 장소는 발리스 안젤로룸, 혹은 천사들의 계곡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유명한 방고르의 수도원은 약 100 년 이후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노래는 유럽으로 다다르게 된다.

C. **Abbot Comgall** founded the monastery at Bangor in 558. Comgall instituted a rigid monastic rule of incessant prayer and fasting. When he died in 602, the annals report that three thousand monks looked to him for guidance. Throughout the sixth century, Bangor became famous for its choral psalmody. “It was this music which was carried to the Continent by the Bangor Missionaries in the following century” (Hamilton, Rector of Bangor Abbey).

수도원장 콤갈은 AD 558 년에 방고르(Bangor)에 수도원을 세웠다. 콤갈은 씩씩한 기도와 금식이라는 견고한 수도원 규율을 세웠다. 그가 602 년에 죽을 때, 기록에 따르면 3,000 명의 수도사들이 그에게 합류했다고 한다. 6 세기를 통해, 방고르는 합창 찬송으로 유명했다. “이 음악이 이후 세기 동안 방고르 선교사들이 대륙으로 전달한 바로 그 음악입니다” (헤밀톤, 방고르 수도원의 교구 목사)

Divine services of the seven hours of prayer were carried out throughout Bangor’s existence and in the twelfth century, Bernard of Clairvaux spoke of Comgall and Bangor, stating, “*the solemnization of divine offices was kept up by companies, who relieved each other in succession, so that not for one moment day and night was there an intermission of their devotions.*” This continuous singing was antiphonal in nature, based on the call and response reminiscent of Patrick’s vision.

방고르 수도원이 존재하는 동안 7 시간씩 하는 기도의 섬김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12 세기에 성 버나드(클레르보)는 콤갈과 방고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이 주신 직임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통해 거룩하게 지켜졌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연결해서 교대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밤낮으로 섬기는 동안 중간 휴식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계속되는 찬양은 사실상 주고받는 노래 (antiphonal) 형식이었으며, 성 패트릭의 환상을 떠올리게 하는 부르고 화답하는 형식이었다.

The ascetic life of prayer and fasting were the attractions of Bangor. However, as time progressed, Bangor also became a famed seat of learning and education. There was a saying in Europe at the time that if a man knew Greek he was bound to be an Irishman, largely due to the influence of Bangor. The monastery further became a missions-sending community.

기도와 금식의 금욕적인 삶은 방고르의 매력적인 점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고르는 또한 배움과 교육에 있어 유명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 당시 유럽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헬라어를 안다면 그는 아일랜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었는데, 이는 거의 방고르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 수도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교사를 보내는 공동체가 되어갔다.

D. Hundreds of monks went out from Bangor and Ireland in small missionary groups of twelve, taking the gospel with them and establishing it throughout Britain and into Europe. They became famous for their missionary zeal – “saving civilization” and holding back the tide of darkness and societal collapse by bringing God to a broken generation but again it began with prayer and it was sustained with prayer.

수 백 명의 수도사들이 12 명의 작은 그룹을 이루어 방고르와 아일랜드로부터 복음을 들고 나와 영국과 유럽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선교적인 열심으로 인해 유명했다. 그들은 깨어진 세대를 하나님께 나오게 함으로 어둠의 물결과 사회의 몰락을 막아 섰으며, “문명을 구했다.” 그리고 이는 역시 기도에서 시작했으며, 기도를 통해 유지되었다.

A WORD ABOUT SOCIAL CHANGE - Many today look around and see many social ills and they conclude that we as Christians need to be involved in social action – stopping sex trafficking, feeding the poor, helping the widows and orphans, legislating against abortion etc etc – I couldn't agree more – the gospel is all about social change. But the lessons of history show us something startling about the big movements of social change – a secret if you like that many conveniently overlook. For people see the social reform and they laud the social reformers, but they fail to take a step back and look at the spiritual renewal which birthed the reformer. Many historians will look back today and see the Irish saving literacy, promoting education and actually bringing civilization to places in Europe and fail to see that it all began with the desire and the commitment to pray. We have much to thank the Irish for. For along with the Benedictines they were responsible for bringing Christ to the dark continent of Europe and few today realize the change this brought

사회 변화, 변혁에 대한 의견 –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며 사회적 깨어짐을 목격하고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사회적 행동(성 노예 중단, 구제 사역, 과부와 고아 도움, 낙태 반대법 세우기 등)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나는 이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복음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 그러나 역사로부터 우리는 사회 변화의 거대한 움직임에 대한 어떤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간과하는 비밀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개혁을 보며, 사회 개혁가들을 칭찬한다. 그러나 이들은 뒤로 물러나서 이 개혁이 일어나도록 한 영적인 갱신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오늘날 아일랜드인들이 문명을 구원하고, 교육을 증진시켰으며, 실제적으로 유럽에 문명을 가져왔다고 회고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도에 대한 갈망과 헌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 우리는 아일랜드인들에게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베네딕트회와 함께, 그들은 어두운 유럽 대륙에 그리스도를 가져온 자들이며, 오늘날 아주 소수만이 이것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In his history classes, C. John Sommerville used to demonstrate to students how thoroughly Christianized they were, even those who were atheistic or anti-religious. He would list the values of shame and honour cultures (like those of pagan northern Europe before the advent of Christian Missionaries) and include values like pride, a strict ethic of revenge, the instilling of fear, the supreme importance of one's reputation and name, and loyalty to one's tribe. Then he would list the corresponding Christian values, which had been hitherto unknown to the pagans of Europe – things like humility, forgiveness, peaceableness and service to others, along with an equal respect for the dignity of all people made in God's image. Many of Somerville's most anti-religious students were surprised to learn just how

deeply they had been influenced by ways of thinking and living that had grown out of biblical ideas and been passed on them through complex social and cultural processes.

His point was that much of what is good and unique about Western Civilization is actually “borrowed capital” from a Christian faith, even though the supernatural elements of faith have been otherwise neglected of late in the public sphere.”

C. 존 서머빌은 역사학 수업에서 그들이, 심지어 무신론자나 반 종교적인 학생들까지도 얼마나 철저하게 기독교화되었는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다. 그는 수치심과 명예의 문화들(기독교 선교사들의 등장 이전의 이교도 북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을 나열했으며, 자만심이나 엄격한 보복 윤리, 공포를 주입하는 것, 개인의 명성과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 자신의 종족에 대한 충성 같은 가치를 나열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때까지 유럽 이교도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던, 이에 상응하는 기독교 가치들, 즉 겸손과 용서, 평화로움, 서로를 섬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 등을 말하기 시작했다. 서머빌의 수업에 있던 많은 반 종교적인 학생들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나온 사상과 방식에 영향을 받아 왔는지, 그리고 복잡한 사회와 문화 과정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져 왔는지로 인해 놀랐다.

그가 말하는 포인트는, 서구 문명의 좋은 점과 독특한 점은 사실 기독교 믿음에서 “빌려온 자본”이라는 것이다. 물론 믿음의 초자연적인 요소는 최근에 대중적인 영역에서 간과되고는 있지만 말이다.

Many today will look at the social reformers of the 19th Century in my home land of England – the Clapham Sect, William Wilberforce and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the likes of Lord Shaftesbury who established many reforms to curb the abuses of raw capitalism, stopping little children from working long hours in mines and in factories. They look at the modern missions movement which began with William Carey and founding of various missions agencies and the spread of the gospel all over the world, yet they fail to look back at the century before to see the spiritual renewal that spread over the land in the 18th Century that created the climate and spiritual fire for this to take place. The revival that took place under the Methodists has had an unprecedented effect on the entire world but tracing this revival back to a small community in Germany would not be far from the truth.

V. A RICH YOUNG RULER, REFUGEES AND A 100 YEAR PRAYER MEETING

부유한 젊은 통치자, 난민들, 그리고 100 년 동안의 기도회

Count Nicholas Ludwig Von Zinzendorf was a rich young ruler born in 1700 to an aristocratic but pious family. Brought up under the leaders of a move of God taking place amongst Lutherans in Germany called Pietism. He soon developed a strong passion for Jesus, Zinzendorf speaks of his early childhood as a time of great piety. *“In my fourth year I began to seek God earnestly, and determined to become a true servant of Jesus Christ.”*

니콜라스 루드비히 본 진젠도르프 백작은 1700 년에 귀족 집안이지만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부유하고 젊은 통치자였다.

- A. The “Father” of the Protestant missions movement is often credited as William Carey. However it was a group of radicals from Germany a generation before which was his inspiration. Led by a rich young ruler Count Nicholas Ludwig Von Zinzendorf this group of persecuted Protestant exiles from Moravia eventually grew to a community of three hundred on Zinzendorf’s land. They named this community Herrnhut meaning “The Watch of the Lord”

윌리엄 캐리는 개신교 선교 운동의 “아버지”로 종종 불린다. 그러나 그에게 영감을 준 이들은 한 세대 앞서 있었던 독일의 과격한 그룹이었다. 부유한 젊은 통치자인 니콜라스 루드비히 본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그룹을 이끌었으며, 이 모라비아의 핍박받던 개신교 그룹들은 진젠도르프 소유의 땅에 300 명의 공동체로 성장한다. 그들은 이 공동체를 헤른헷이라고 이름지었으며, “주님을 기다린다, 혹은 주님의 파수꾼”이라는 뜻이다.

- B. August of 1727 is seen as the Moravian Pentecost. Within two weeks of the outpouring, twenty-four men and twenty-four women covenanted to pray “hourly intercessions,” thus praying every hour around the clock. They were committed to see that “The fire must be kept burning on the altar continuously; it must not go out” (Leviticus 6:13). The numbers committed to this endeavor soon increased to around seventy from the community. This prayer meeting would go non-stop for the next one hundred years.

1727 년 8 월은 모라비안들의 오순절로 불린다. 2 주간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후, 24 명의 남성과 24 명의 여성들은 “시간을 나눠 중보”함으로 24 시간을 중보하는 언약에 자신을 드린다. 그들은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 6:13)라는 말씀을 눈으로 보기 위해 헌신한다. 공동체에서 이 노력에 헌신한 사람들의 숫자는 곧 70 명 정도로 성장했다. 이 기도회는 이후 100 년이나 지속된다.

- C. From the prayer room at Herrnhut came a missionary zeal which has hardly been surpassed in church history. The spark initially came from Zinzendorf’s encounter in Denmark with Eskimos who had been converted by Lutherans. The Count returned to Herrnhut and conveyed his passion to see the Gospel go to the nations. As a result, many of the community went out into the world to preach the gospel, some even selling themselves into slavery in order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This commitment is shown by a simple statistic. Typically, when it comes to world missions the Protestant laity to missionary ratio has been 5000:1. The Moravians however saw a much increased ratio of 60:1. Forty years after they had begun some 226 missionaries had been sent out from the community at Herrnhut.

헤른헛의 기도실에서는 교회사에서 능가하기 쉽지 않은 선교적인 열정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이 불꽃은 진젠도르프 백작이 덴마크에서 루터파 교회로 개종한 에스키모를 만났을 때 시작되었다. 백작은 헤른헛으로 돌아와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열정을 전했다. 이 결과로 공동체의 많은 숫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갔고, 어떤 이들은 이 지상 대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다. 이 헌신은 단순한 통계로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 평신도의 선교사 숫자는 전체 평신도 수의 5000:1 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모라비안들은 60:1 이라는 놀라운 비율을 보인다. 그들이 이를 시작한지 40 년 후에, 226 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헤른헛 공동체에서 나오게 된다.

The Moravians are known for their extravagant devotion in missions, selling themselves in slavery, going to places where they knew they would not return all so that as they said “The lamb would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Yet this zeal wasn’t formed in a vacuum, indeed it’s impossible to separate the prayer life and the missions life of the Moravians, they are truly two sides of the same coin.

이 모라비안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며, 자신이 전혀 돌아오지 못하게 될 장소로 가버리는 넘치는 헌신을 하며 말했다, “어린 양께서는 그의 고난에 대한 상급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열정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모라비안들의 기도의 삶과 선교적 삶은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I could tell story after story in the 19th Century and the early 20th Century about prayer and spiritual renewal birthing missions and social reform, but I want to bring it up to date. I’ve recently been making a television program for TBN which looks at what God is doing around the world in missions. I’ve had the privilege to talk with some amazing saints from all different walks of life, churches and ministries who are doing amazing things for the kingdom. As part of this I am working on a program entitled the Story of Campus Crusade and another one entitled The Story of YWAM. These are two of the biggest missions organizations on the planet and in talking with their leaders I am struck by a few things which by now should perhaps be unsurprising to you. Both of these organizations didn’t begin with founders who saw the needs of the world and went to fix the world through mission. They both started in a profound way with prayer, fasting and seeking the face of God. It’s the way Bill Bright of Campus Crusade started and the way he finished his life. Recently I was interviewing Loren Cunningham of YWAM. I asked him about the future of YWAM. I said that many of the organizations of the 19th Century that had been fiery in prayer and missions now no longer held those values – I may go to the local YMCA for a swim, but I’m not going there for a prayer meeting and to be disciplined in the word. Loren played the sovereignty card. He said he saw himself as a successor in the spirit to the Moravians and those firebrands in the 19th Century like the Booths who started the Salvation Army. He said in each generation God chose vessels to

work through, He had worked through YWAM, but who knew in future generations. I asked the same question to the fiery Joy Dawson. She stared at me as only Joy Dawson can, and said “I don’t know” – If YWAM doesn’t return to prayer I don’t know what the future is. The word isn’t just for YWAM. If you want to do great things for God, the word is for you.

Now to my confession – I first came to Kansas City in 1996 – I studied at the Grace Training Center. I attended the sparsely attended prayer meetings. But after IHOP began I would come and wrestle in the prayer room – I want to become a messenger I don’t need to pray so much. I didn’t need to move to Kansas City. The reason I changed my mind was two fold. I was on the stage at a Reinhard Bonnke crusade in Africa praying for the sick and seeing amazing miracles when the Lord quietly whispered whether I was doing it from a place of intimacy, would he say to me as to other miracle workers on the day of the Lord away from me I never knew you? During this time I was leading worship for a South African potato farmer – you may have seen the movie “Faith Like Potatoes”. Now Angus would have primarily described himself as a Farmer, but he was also a healing evangelist... but as I travelled with him I also discovered he rose at 4am and prayed til noon – 8 hours a day. It broke me down – Angus didn’t call himself an intercessor, but he was done with our sacred trust hours in just three days of the week. When I get too busy I have to draw myself back to this – it is doesn’t begin with relationship with Jesus, if it doesn’t begin in prayer and the word of God, we are building upon sandy ground. Arguments against 24/7 Prayer are red herrings – the real question is are you praying.